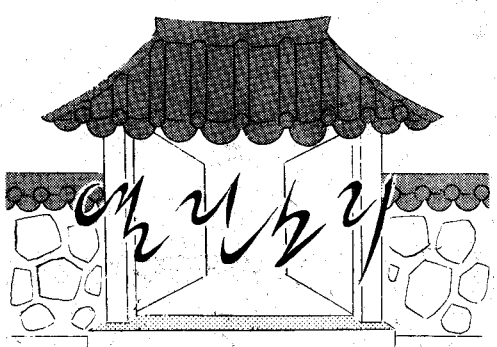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또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시와 만화를 기다립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khunews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khunews

전학대회 무산유감

대표자들 책임 다하기

지난 1일 서울캠퍼스 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어 있었다. 일년에 두번 열린다는 점 외에도 전체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그 중요성을 지니었다. 그러나 이번 전학 대회는 아쉽게도 무산되었다. 그런데 그 무산 원인이 경찰의 원천 봉쇄도 아닌 바로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이라 그 문제성이 크다.

당초 5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 대표자들의 불참으로 두 시간여 동안이나 지연되었고 결국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하면 회의는 무산된다는 회칙에 의해 이번 하반기 전학대회는 무산되었다. 전체 학생대표자 2백8명 중 참석한 68명은 제대로 토론을 해 보지도 못한채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각 대표자들은 좀더 책임있게 행동해야 했다. 우리학교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학생회 운영사

항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한다. 가뜰이나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 관련사항에 냉담해지고 있는 요즘 대표자들의 역할이 더욱 크다. 무너진 대중 조직을 바로 세우고 학생 자치권을 수호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전학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표자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흔들리지 않는 학생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 소 연
(이학부1)

강사 임의의 '휴강' 학생과의 약속 지켜야

9시 수업이 있어서 일찍 학교에 와보니 강의실 앞에 '휴강'이라는 공문이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맥이 풀렸다. 그런데 그

다음주에도 그 수업은 휴강이었다.

2학기가 개강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다. 그런데도 그 수업은 4번중에 1번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첫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중간고사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도를 맞출지 의문스럽다.

편하게 공부하며 노는 곳이 대학이라는 생각때문에 1학기 때는 휴강이 마냥 좋았다. 물론 지금 나와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중에도 계속해서 휴강된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있는 과목을 선택한 것인데 강사가 임의로 두번씩이나 휴강하는 것은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오신 우리과의 한 교수님은 정해진 수업시간을 언제나 꼭 지키신다. 그들의 그런 수업방식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시는 것이다. 그때문에 가끔 학생들에게 원망을 들으시기도 하지만 정해진 수업시간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해 숙
(사학1)

농활, 개인주의로 얼룩져

진정한 봉사정신 필요

가을의 정취가 더해가는 요즘 캠퍼스 각 단체들은 가을 농활을 준비 또는 실행에 옮겼다.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하자는 취지 아래 농활은 그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요즘, 농활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것 같다.

올해 여름도 농활은 있었다.

출발할때에는 모두가 농촌의 심각성을 같이 느끼자며 구호를 외치던 농활 대원들. 그들이 막상 농촌에 도착한 후의 자세는 정말 편편이었다.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미숙할 뿐이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애써 변명하거나 숨기려함은 농민을 슬프게 한다. 서울서 곱게 자란 대학생이라고 농민을 무시하는 말투는 농민에게 자괴감을 준다. 밤늦게까지 고성방가하면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농민의 아픔만 더할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명제가 이미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농활의 참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같은 인간대 인간으로 그들의 아픔을 되새겨야 한다. 작업시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왕 참가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 하고 농민께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개인주의적 행동을 삼가하고 적극적으로 단체 활동을 해야 마땅하다.

이번 가을 농활도 예전과 같이 나태하고 개인주의로 얼룩져서 안될 것이다. 진심으로 느끼고 돕기위한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농촌과 도시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농촌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채 수 장
(경영2)

독자의 만화

윤 여 훈
(법학 2)



대학주보

올부조편

'실패한 채용박람회' 기사

학생노력 간과 아쉬워

지난주 대학주보 기사중 채용박람회에 설치된 Booth가 부러진 사진과 그 아래 채용박람회가 실패로 끝났다는 기사를 읽었음에 취업정보실에서 수고한 것이 한 줌의 재가 된 것 같아 좀 황당했습니다.

과연 실패했다는 것이 자연재해로 무너진 Booth만을 보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기사는 취업정보실과 전체 취업대책위원회(취대위)의 노고를 한번에 무너 뜨리는 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단정을 내렸는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인지 아닌지

면 대학주보가 그렇게 판단하고 기사를 게재했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학생들의 의견이 정말로 그렇다면 저의 취대위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대위에서는 경희대 사상 처음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학우들의 취업에 큰 도움을 주어 취업을 돕고자 했습니다. 저의 경제학과 학우들은 비가와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취지이고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취업정보실을 기업체마다 전화와 방문을 통해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기사에는 "실패"라는 단어보다는 비가 와서 아쉬웠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취업정보실의 좋은 취지는 나타나지 않은 채 두려워버린 것 같

은 Booth를 보여주며 단적으로 채용박람회가 실패했다는 말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업대책위원회

(천리안 : YUN 1972)

'문화참여 저조' 비판 공연 끝까지 취재 필요

지난주 대학주보 기사중 학생들의 "문화참여"가 적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중에 참가인원이 5명이라 했는데 제가 행사를 참여했을 때는 청중들은 다섯명 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는 적었지만 학과 사람들과 타단체 민가노래패들을 포함해 약 20명은 참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우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

해서 초라한 공연이라고 기사를 쓴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행사를 끝까지 취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과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여러 청중들에게는 그 기사의 내용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 찬 우
(유니텔 : hunk 9636)

대학주보 올부조편 안내

대학주보를 읽으시며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대학주보에 전하고 싶으신 사안, 취재제보가 있으시면 학내 비치된 '열린소리함'이나 다음 PC통신 I : 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안·하이텔·유니텔 : Khunews

朔風

입시할 때 모 선배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3번 있다고 들었다. 첫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전공'이고, 다음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직업선택'을 결정할 때이며 마지막이 누구와 살 것인가 '결혼'을 결정하는 때라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당시 선배의 충고가 갈수록 의미가 세로워진다.

바야흐로 취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다. 취업이 어려운 때일수록 취업시장은 고용자의 입장이 유리해지는 'BUYERS MARKET'으로 변한다. 취업 희망자들은 따라서 고용자들이 자신을 매입해주도록 진열대 위에 잘 포장해서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일본의 젊은 20대 미혼 남녀들과의 모임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인기 선호도 일순위는 개인 사업자였다. 꽃가게를 하던 약국이던,

편의점이던,복합방을 하는 등의 소규모이지만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상대를 결혼 상대자로 제일 선호 한다는 것이다. 도요타, 닛산, 히타치 등 번듯한 대기업에 입사해 시계바늘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젊은 그들에게 더 이상 결혼 상대자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보험금을 불입하고 집세내고 아이들 양육비 내고 나면 해외 여행은 고사하고 그 좋다는 핫카이드오의 스키장 한번 못가보는 신세가 된다는 우려가 첫 번째 이유였다. 자영업이 주는 자유로움과 독립적인 생활 양식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만의 일은 아니다.

젊은이들의 물질주의를 개탄할 수도 있지만 직업의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분화와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직업에 대한 고전적인 시각이 우리사회에서도 다양화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입사

창업 VS 취업

한 사람과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장래. 위험을 즐기면서 자기일을 개척하는 독립적인 성향인 사람은 창업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 정치, 경제 제도는 이러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형을 고무시키는데는 실패한 것 같다.

창업을 하면 사업자금의 융통에 늘 시달려야 하고 직원 봉급도 쥐어주고 모든 것에서 고생만이 흔히 열린다는 우려로 우리들의 부모, 친지들이 쌍수를 들고 말리는 식이다. 사회체제가 이러한 개인 창업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는 최근 "왜 일본의 젊은이들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로만 진출하려고만 하는가? 왜 일본내에서는 창업이 불가능한가?"면서 일본의 정치, 경제, 교육의 대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의 실정은 개혁을 외치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다. 최근 대학마다 벤처 창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실제 속사정은 그

렇지 못하다는 소식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학교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일부 우리 젊은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이제 직업의 의미는 단순히 '빵'을 얻기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이되고 있다. 창업에 뜻을 둔 젊은 학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해지고 시장이 국제화되는 시점에서 개인 창업자는 전공 분야의 지식과 함께 회계, 경영 분야의 지식과 외국어 소양이 단순 기업의 취업자보다도 한단계 더 높게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여름의 뜨거웠던 태양하에 꿈을 품었던 학우들의 새로운 기회의 땅을 향해, 이 가을에는 모두 힘차게 발을 내딛기를 희망한다.

(罐)

40
동양 1957-1997



내 생애 최고의 부킹!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앞당기는 동양그룹 -
생각이 젊고 패기가 넘치는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키울 수 있는 곳
당신이 키워갈 수 있는 곳 -
지금, 그 젊은 기회의 땅,
동양그룹에 부킹하십시오

동양그룹 신입사원 모집

구분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동양매지	동양글로벌	중앙투자신탁	동양시멘트/건설	동양Systemhouse
전학점	●	●	●	●	●	●	●	●	●
상경	●	●	●	●	●	●	●	●	●
법정	●	●	●	●	●	●	●	●	●
인문사회	●	●	●	●	●	●	●	●	●
기계	●	●	●	●	●	●	●	●	●
전기	●	●	●	●	●	●	●	●	●
전자	●	●	●	●	●	●	●	●	●
화학	●	●	●	●	●	●	●	●	●
토목	●	●	●	●	●	●	●	●	●
건축	●	●	●	●	●	●	●	●	●
산공	●	●	●	●	●	●	●	●	●
도시공학	●	●	●	●	●	●	●	●	●

*동양 Systemhouse는 원산관리학과 우대.

2. 응시자격

가. '69. 1. 1. 이후 출생자(대학원 졸업자는 '67. 1. 1. 이후 출생자)
나. 모집부문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다.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1차, 2차) 다. 신체검사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당그룹 소정양식)
나. 추후 첨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지참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자는 대학 포함)
* 자격증 사본, 취업보호대상 증명서, 외국인 공인신정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7. 10. 13(월) ~ 10. 17(금) 09:00~17:00
나. 우편접수처: 100-192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동양종합금융빌딩) 동양그룹 인력관리위원회
다. Internet 접수: http://www.tongyang.co.kr
라.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구분	장소	접수	전화
서울·경기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동양종합금융빌딩) 동양그룹 인력관리위원회	(02)3708-7676~8	
부산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무역국제빌딩 8층) 동양증권 부산중앙지점	(051)464-8284	
대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559-10 (보문빌딩 2.3층) 동양증권 대구지점	(053)742-0600	
광주	광주시 북구 북동 290 (조흥은행빌딩 5층) 동양생명보험 광주지점	(062)527-1323~4	
대전	대전시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빌딩 3층) 동양생명보험 서부지역본부	(042)534-4810	

6.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 또는 인사사무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관리위원회 ☎(02)3708-7676~8 (모집기간만 가동)
* 합격자 문의 (ARS) ☎(02)700-9192

동양그룹

제조
식품

동양시멘트 동양건설 동양매지
오리온프린트레이 동양산업기계
동양도합

금융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중앙투자신탁
동양카드 동양알부금 동양창업투자 아세코리아투자자문
동양선물 동양파아니스

무역·건설
유통

동양글로벌 동양시멘트/건설 정보통신
동양엔조 동양마트

동양Systemhouse
투니버스

레저
스포츠

동양H&R 동양레저 동양오리온스 공익

서남재단